

근대 신분제도의 변동과 일상생활의 재편*

- 형평운동과 백정들의 일상 -

신 중 헌**

Ⅰ 국문초록 Ⅰ

이 논문은 백정계급의 근대 신분 제도 변천과 일상을 알아보고, 백정(白丁)들의 형평사 운동이 어떻게 문학작품 속에 반영되는지 살피는데 목적을 둔다.

백정은 조선시대 이래 가장 천대받는 계층의 하나였다. 조선시대는 모든 생활체계가 신분 위계질서에 의해 철저히 구속되었는데 이들은 가축 도살과 유기제조업에 종사하며 천민으로 궁핍한 생활을 살아야 했다.

1894년 갑오경장의 선언에 따라 법제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백정은 법적으로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는 해도 차별적인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존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현실적으로는 '최하층 계급(social underdog)'이었기에 백정에 대한 인식이나 차별대우 등 일상의 모든 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백정들은 저항하게 되었고, 『독립신문』, 『황성신문』, 〈독립협회〉 등의 언론, 사회단체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차별 대우의 부당성을 성토했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그동안 무적자로 직역의 의무가 없던 백정도 갑오개혁 이후 국가의 통제 아래에 들어간다. 이는 '포사규칙'이란 법령을 통해 규제되는데 특히 일제는 도수장과 수육판매업을 분리시켜 도수장을 장악함으로써 백정들을 구속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백정들은 신분해방을 위해 결속단체 〈형평사〉를 조직한다. 형평사라는 이름은 저울대 형(衡), 고를 평(平), 단체 사(社), 저울대와 같이 인간의 신분은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로 오랫동안 천대와 멸시를 받던 인권을 스스로 지키고자 한 운동이다. 형평운동은 1923년에 시작되었는데 형평사의 출현은 일본 수평운동과 간접적인 영향 관계에 놓이지만 3·1운동 이후 민족, 사회 운동의 새로운 진전으로 살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형평사 운동은 언론과 일반 사회운동 단체들로부터 직·간접으로 지원을 받아 창립 1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12개 지사와 67개 분사로 그 조직이 뻗어나갔다. 그러나 형평사 운동은 방법론상 문제와 사상 문제 때문에 1년 만에 분열되었다. 또한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노선을 같이 하면서 1926년 이후부터는 조직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005-J02202)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sjh@dankook.ac.kr

강화와 무산운동에 진출할 것을 명백히 하여 사회주의 운동으로 기울어진다.

봉건적 신분제 철폐의 가장 첨예한 운동이었던 형평사 운동은 그대로 소설에 반영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조명희(趙明熙)의 「낙동강」과 황순원(黃順元)의 「일월」을 들 수 있다.

「낙동강」에서는 형평사 회원들과 장터에 나온 사람들과의 싸움을 묘사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형평사와 일반인과의 충돌을 모티프로 한 것으로 당대 현실의 재현으로 반영되었다. 백정들이 신분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 교육이었는데 「낙동강」에서도 박성운의 애인인 로사가 사범과를 마치고 함경도에서 보통학교의 여훈도가 된 것도 당대 현실의 그대로이다. 백정 신분의 여자가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일, 이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형평운동과 백정의 문제는 해방 후 황순원(黃順元)의 「日月」에서 더욱 구체화 된다. 이 소설은 형평사 운동 이후를 형상화하면서 백정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음을 그려낸다. 즉, 법제상으로 철폐된 백정이 일상생활에서는 계속 차별과 배제를 받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봉건적인 신분제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신분제도, 백정계급, 형평사, 집단무의식(metalites), 사회운동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Ⅲ. 소설에 비추어 본 백정계급의 일상 |
| II. 백정신분의 위상 변화와 형평사 창립 | IV. 맺음말 |

I. 머리말

19세기 중엽의 한국 사회는 큰 혼란기를 맞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조 지배체제는 이미 그 역사적 탄력성을 잃어갔고 반대로 민중세력은 꾸준히 사회경제적 위치를 상승시키면서 왕조 통치 체제에 저항하였다.

체제의 위기는 체제 내외에서 동시에 찾아왔다. 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사회적 압력은 선진 자본주의 열강의 침입이 그것이었다.

이 새로운 도전은 ①서학(천주교)의 포교, ②이양선(異樣船)의 연안 출몰, ③외국 상선의 통상 요구, ④중국을 통하여 들어온 서구제품의 시장 출현, ⑤歐·美·日 자본주의의 개항 요구, ⑥선진 자본주의 제국에 의한 식민지화의 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이 도전은 한국사회에 대하여 종래의 폐쇄체제로부터 개방체제로의 변환을 요청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개방체제로의 전환 후 외부로부터의 도전을 적절히 자기의 힘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민족 공동체 자체가 <식민지>로 전락할 수

도 있게 되는 매우 심각한 성격의 것이었다.

체제 내부로부터 발생한 사회적 압력으로서의 민중(특히 농민)의 체제개혁 요구가 그것이었다. 1811년의 홍경래란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해서 그 후 해마다 끊임없이 소규모의 '민란'이 일어났으며, 1862년의 진주민란은 체제개혁을 요구하는 밑으로부터의 농민폭동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러한 체제개혁 요구는 농민층이 앞장섰지만, 당시 광범위한 신흥사회 계층의 지지 위에 선 것이었다. 첫째, 상공인층을 비롯한 새로이 대두하는 시민계층이 체제개혁 요구를 지지하였다. 둘째, 종래의 노비 신분층이 농민들의 체제개혁 요구에 참가하고 이를 지지하였으며 때로는 그 주체가 되었다. 셋째, 광산노동자층과 유민·모군(募軍)들이 농민들의 체제개혁 요구에 참가하고 이를 지지하였다. 농민을 선두로 한 이러한 광범위한 신흥사회 계층의 사회체제개혁 요구는 사회구조의 유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체제 내의 개혁과 재조정의 요구가 아니라, 사회구조 그 자체의 변혁의 요구, 즉 새로운 유형의 사회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요구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수반하는 것이었다.¹⁾

체제 외부의 도전이 구미 열강의 이질문명의 도전이자 산업혁명을 거친 근대체제의 전근대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체제 내부로부터의 도전은 자유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한 근본적인 사회체제개혁의 요구였다. 그 중에서의 핵심은 신분사회 체제의 폐지에 있었다.

사회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전근대사회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는 사회신분제도이다. 따라서 사회사적 관점에서는 <전근대>와 <근대>를 구분하고 전근대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변환적 계기와 전환점을 만드는 것은 사회신분제의 폐지라고 할 수 있다.²⁾

위의 진술처럼 사회신분제의 폐지는 근대 국민국가로의 전환의 핵심요소에 해당한다.

표면적인 사건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사회신분제의 폐지는 1894년의 갑오경장 때 개화파 정부의 신분제 폐지의 법적 조치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적 조치가 있기까지에는 구조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흐름이 있었다. 그 하나는 밑으로부터의 농민운동으로 조선왕조 후기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노예신분층과 양인신분층의 신분제도 폐지운동의 흐름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선후기의 실학파로부터 초기 개화파에 이르는 선각적 개혁논자들의 신분제도 폐지운동의 흐름이었다.

밑으로부터의 농민운동은 양인신분층과 천민(노비)신분층의 농민이 납속(納粟), 족보변조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분 상향이동과 신분해방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란을 일으키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중에서 사회신분제의 폐지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민란'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1) 신용하, 『한국근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0, pp.11~12.

2) 신용하, 「1894년의 사회신분제의 폐지」, 『규장각』 제9집, 1986, p.49.

방법은 신분해방을 ‘개별적’으로 성취하려는 방법인데 비하여 ‘민란’은 신분차별의 ‘제도’ 그 자체를 폐지하여 신분해방을 ‘전체적’으로 성취하려는 측면과 특징을 크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란’을 표면의 사건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三政의 문란, 봉건관리의 가렴주구 교정을 목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관찰되지만, 심층의 구조사와 구조변동사의 관점에서 보면 ‘민란’의 심층에는 본질적으로 사회신분제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민란들은 18세기 이후 전국 농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오다가 이 ‘민란들의 연속선’상에서 1894년에 갑오농민전쟁이 폭발하여 사회신분제 폐지의 결정적 국면과 동인을 만든 것이었다.

사회신분제의 폐지를 추구하는 위로부터의 흐름은 조선후기 실학파로부터 현저하게 대두되었다. 그들은 노비제도를 비판하고 그 폐지를 주장했으며, 노비제도·서얼차별제도를 비롯한 사회신분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실학파의 사회신분제 폐지 사상에서 가장 큰 논의점은 양반신분층을 어떻게 생산자화하여 실제로 양반신분제도를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와 노예제도를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조선후기 실학사상을 안으로 계승발전하여 형성된 초기 개화파의 개화사상의 평등사상은 바로 이러한 실학파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킨 것이었다. 초기 개화파의 지도자인 김옥균은 양반신분제도에 대하여 이를 ‘芟除’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 ‘芟除’라는 용어는 ‘낮으로 단번에 풀을 베어 없애는 것’으로서 ‘廢止’나 ‘革罷’보다도 강한 용어였다. 즉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양반신분제도를 단칼에 즉각 베어 없앨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었다.

초기 개화파의 지도자인 김옥균의 이러한 위로부터의 흐름의 사회신분제도 폐지의 주장은 밑으로부터의 흐름인 양인신분층과 천민신분층이 ‘차별’과 ‘불평등’ 반대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의 인간해방의 하나로 생각하여 사회신분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것과는 결론은 같지만 그 접근방법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94년 갑오경장 때 군국기무처의 개화파들이 군국기무처 의안으로 사회신분제 폐지의 법령을 제정 공포한 것은 바로 이 초기 개화파의 사회신분제 폐지 사상과 혁신정강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이었다.³⁾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피지배계층인 양인신분층과 천민신분층의 신분제 폐지가 법제상으로는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실천적 대안이 모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존재는 인정하되 우선의 의식대상일 수 없었던 사회적 피지배계층, 그들 가운데에서도 ‘최하층 계급(social underdog)’의 존재인 백정(白丁) 계급은 역사의 이방이자 정치적 치외의 공간에 방치되고 있었다. 물론 관보를 통해 백정을 포함한 천민에 대한 신분철폐 의안도 존재했지만 차별대우나 수탈은 사실상 완화되거나 진전되지 않았다.⁴⁾

본고에서는 백정계급의 근대 신분제도의 변천과 일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자와 기록의 향배를

3) 신용하, 앞의 논문, pp.49~54.

4) 「驛人倡優 皮工 并許免賤事」, 『日省錄』; 『高純宗實錄』 고종 31년 7월 2일; 『官報』 갑오 7월 2일; 『議定存案』第一 개국 503년 7월 3일 『高宗時代史』 3(탐구당, 1969), p.508.

권력이 결정한다는 말도 있지만 지식세계가 지배계급의 역사에만 눈길을 맞출 때 그들의 삶은 지적 인 논의의 화두로조차 오를 수 없었다. 씌어지지 않았던 역사와 있었던 일들 사이의 공백은 상상과 추론, 그리고 합리적 해석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II. 백정신분의 위상 변화와 형평사 창립

백정은 조선시대 이래 가장 천대받는 계층의 하나였다. 이들은 소·돼지와 같은 가축 도살과 수육 판매, 그리고 유기(柳器)제조 등에 세습적으로 종사하였다. 그들은 또한 일반인들에게서 격리된 채 일정지역에서 거주해야 했으며 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다.

역사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백정의 선조가 천민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우성은 고려시대의 백정이 “白丁은 국민 개개의 人身을 丁으로 파악하려는 고려국가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土地給付(田丁連立)를 통하여 그 파악의 단위를 戶에다 두었으며 戶의 대상을 고정(嫡長子相續)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데서 나온 것이다. 이때 丁戶가 될 수 있는 백성층에서 토지를 못 받아 丁戶가 되지 못한 축들”⁵⁾ 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강만길은 “조선시대에 白丁이라 불리었던 자들도 그 祖先은 북방에서 흘러 들어온 유목민 출신이었으며 이들은 한반도의 농경사회에 들어와 생활하면서도 영농법을 배우지 못하고 그들의 전통적 생활양식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농경사회에 이동해온 유목민들이 일반적으로 그 러하드시 백정들도 뛰어난 무력과 기민한 행동성을 이용하여 농경사회를 약탈하였고 한편으로는 도살, 유기(柳器)의 제조판매 등 상업에 종사하였으며 농경사회의 군인으로 채용되기도 하였다”⁶⁾고 설명하고 있다. 설명방식은 다르지만 적어도 백정의 출발이 천민이 아니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경우가 달랐다. 조선왕조는 정치·사회체계 구조가 철저하게 신분 사회였다.

조선왕조의 모든 생활체계는 신분위계질서에 의해 구축받았다. 곧 사람들의 위세, 사회적 관계,

5) 이우성, 「閑人·白丁의 新解釋」, 『역사학보』 19, 1962, p.89.

백정 개념의 고려사적 기초에 “고려시대에 軍役, 其人役, 驛役 등의 특정한 職役을 부담하지 않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층. 백정이란 명칭은 원래 중국의 남북조와 수(隋)나라에서는 無官者인 평민, 즉 백성을 일컫던 말이다. 백정의 ‘白’은 ‘없다’ 또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고 ‘丁’은 ‘丁戶’ 또는 ‘丁人’이라는 뜻으로 白丁은 丁戶가 아닌 사람을 지칭한다. 고려시대의 정호는 16세에서 59세까지의 民丁 중에서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던 사람을 말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9권, p.439.)

6) 강만길, 「鮮初白丁考」, 『사학연구』 18, 1964, pp.525~26.

백정이란 명칭에 대해 “고려시대부터 才人 혹은 禾尺으로 지칭되어 오던 이들이 공식적으로 白丁이라 개칭된 것은 세종 5년(1423) 10월이었다. 실록기사에 의하면 才人 禾尺이 본시 良人인데 그 직업이 천하고 호칭이 달라서 백성들이 모두 異類로 보고 그들과 혼인하기를 꺼려하니 그들을 白丁이라 고쳐 부르자고 제의한 兵曹의 안을 왕이 수락한 바 있다. 이로 보아 이후로부터는 과거의 才人和 禾尺을 통틀어 白丁으로 불러야 하겠으나 실재는 실록기사에도 禾尺·水尺·才人·韃靼禾尺·才白丁·才人白丁·新白丁·白丁 등으로 혼용되고 있어서 구명칭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한편, 신구 명칭이 복합되어 불려지기도 한 것 같아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선조백정고』, p.492)

공적인 의무, 심지어 직업까지도 타고난 신분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 신분은 위에서부터 크게 兩班, 中人, 常民, 賤民의 네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위의 세 집단은 제일 낮은 천민과 대비하여 良民으로 지칭되었다. 천민은 다시 七般公賤과 八般私賤으로 나뉘어졌다. 칠반공천은 1) 妓生, 2) 內人, 3) 吏族, 4) 驛卒, 5) 牢令, 6) 官奴婢, 7) 有罪逃亡者 등을, 팔반사천은 1) 僧侶, 2) 伶人, 3) 才人, 4) 巫女, 5) 捨堂, 6) 擧史, 7) 鞋匠, 8) 白丁 등을 가리켰다. 똑같은 천민으로 구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회적 위세나 차별대우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실제 생활에서 양민들, 특히 양반과의 관계에 따라 사회적 위세가 크게 달라졌다. 보기를 들어, 관노비는 일반적으로 다른 천민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갖고 있었으며, 양반들의 유희대상이었던 기생들은 지배층의 생활방식에 더 가까이 어울렸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던 백정들은 천민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점에서 조선사회에서 백정은 인도의 ‘不可觸民(the untouchables)’이나 일본의 ‘部落民’에 해당하는 존재였다. 백정은 가장 천대받은 사람들이었지만, ‘白丁’이란 낱말 자체가 동양아시아의 문화에서, 심지어 고려시대 때조차도 천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려시대에 백정은 납세나 병역의 의무를 갖지 않았던 특수한 ‘일반인’ 집단을 가리켰다. 그 후 왕조가 바뀌면서 그 낱말은 천민집단인 才人和 禾尺의 명칭과 접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집단들은 원래 양수척이라고 불렸다. 고려시대에 이 천민집단들은 주로 도살업, 고리제품 생산, 광대 공연, 때로는 매춘에 종사하였다. 그들의 명칭은 15세기 초에 일반인들과 동화시키려는 의도에서 新白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新’字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집단은 다시 水尺(사냥꾼, 가죽제조업자, 매춘부)과 白丁(도살꾼, 고리제품 생산자)으로 나뉘어졌으며, 그 가운데 백정은 수척보다 더 천한,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원들 가운데 제일 천한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 이후 백정이란 호칭은 조선사회에서 가장 천한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굳어졌으며, 시대변천에 따라 楊水尺, 水尺, 才人, 才人白丁, 新白丁 등 여러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또 그 호칭은 직업의 특성에 따라 더욱 복잡하게 분화되었다. 단순히 고리제품을 생산하는 백정은 柳器匠이나 고리백정으로, 가죽제품을 생산하는 백정은 皮匠, 갓바치, 皮工, 두벌 백정으로, 주로 도살이나 정육의 일에 종사하는 백정은 칼잡이, 宰殺꾼, 才人, 屠漢(혹은 屠汗) 등으로 불려졌다. 한 마디로, 백정은 조선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집단이었다. 시대에 따라 호칭이 달라졌고, 또 호칭도 직업에 따라 분화되었지만 그들에 대한 대우는 여전히 다른 천민들보다도 더 낮았다.⁷⁾

따라서 그들은 신분제 사회인 조선사회에서 체제 속으로 편입될 수 없었던 서얼이나 소작농민, 심지어 노비보다도 더 낮은, 인간 축에 끼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받았던 사회적·차별대우를 살펴보자면,

- 1) 생활상의 여러 가지 차별로, 가옥에 기와지붕이나, 의복에 명주의 사용은 허락되지 않았다. 머리에 笠子·綱巾·宕巾을 쓰는 일, 가족신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외출할 때는 봉두난발에 荒竹

7) 김중섭, 『형평운동연구: 일제침략기 백정의 사회사』, 민영사, 1994, pp.42~45.

으로 짤 平涼子(패랭이)를 써서 한 눈에 신분을 알도록 했다. 또한 일반인 앞에서 깍연·음주·연회 등도 금지 당했다.

- 2) 관혼상제에 있어서의 차별로, 장례식에 상여 사용이 금지되었고 묘지도 일반민과 구분했다. 혼례에 馬·輿 등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결발(結髮)을 인정치 않았고 가묘(家廟) 등도 절대 불허하였다.
- 3) 교육상의 차별로 일반민과 동등하게 허락되지 않았고, 입학을 해도 배척당했다.
- 4) 교제상의 차별로, 일반민에 대해서 최경례(最敬禮)를 해야만 했고 공공집회에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일반민의 집을 방문하는 일에도 제한을 받았다.
- 5) 성명의 제한으로, 仁·義·忠·孝 등의 글자를 사용하지 못하고 특정한 姓을 강요당했다.(姓을 갖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때도 있었다)

이외에도 거주지역이 제한되어, 일반민과의 거주를 불허했으며, 교외 일정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게 했다.⁸⁾

무엇보다도 양반은 물론이고 일반민들도 나이 차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백정에게는 반말을 썼다. 한국어의 존대법은 신분제 사회의 수직적 인간관계의 매개에 중요한 지표가 되듯이, 이 점은 신분제 철폐 이후 일반민과 백정 사이에 큰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권리는 아무 것도 없었으나 의무는 많았다. 상민들이 꺼리는 도축업이나 유기를 다루면서 거친 노동을 하였으나 홀대와 인습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조선의 백정들은 폭력적이지 않았다. 즉 체제에 대하여 도전적 항거를 획책하기에 백정들은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었고 또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았다. 집단적 파괴력을 도모할 만큼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지도 않았다. 거칠고 고립된 삶의 조건을 스스로 추스리며 주변과의 갈등보다 침묵과 굴종으로 견디어 냈다.

앞서 밝혔듯이 1894년 갑오경장의 선언에 따라 모든 신분제가 명목상 폐지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문벌과 반상의 구별을 폐지하며 귀천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선용한다는 것, 문무(文武) 차별을 폐지한다는 것, 공사 노비제도를 폐지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한다는 것, 과부제가 금지제도 및 조혼제도를 폐지한다는 것, 연좌제를 폐지하고 평민의 정치적 의견을 들겠다는 것, 역인(驛人), 창우(倡優), 피공(皮工)을 면천하고, 양반의 상업 진출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백정에게는 면천이야말로 천지개벽의 일이었다. 그러나 제도나 정치적 선언으로 사회적 인습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었다. 백정에 대한 인식이나 차별대우, 생활여건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당시 관리나 세력가들의 관행적인 수탈과 억압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1896년 9월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시행으로 백정과 승려들도 호적에 등재될 수 있었다.⁹⁾ 그러나 이들의 호적은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되었다. 한 예로 평안남도 각 군에서는 호적을 작

8) 이와 같은 차별상황은 「개벽」 1924년 7월호에 게재된 車賤者의 “白丁社會의 암담한 生活相을 거론하여 衡平戰線의 統一을 促함”이라는 논문을 중심으로 주요한 것만 뽑은 것이다. (고숙화, 「衡平社에 대한 一研究」, 『사학연구』 제38호, p.661 재인용)

성할 때 승적(僧籍)과 도적(屠籍)이 『外各府公牒摘要』 1898년 5월 17일 훈령에 의해 따로 작성되었다. 더욱이 백정은 직업란에 ‘屠漢’이란 붉은 글씨로 등재하여 식민지시대까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1897년 3월의 내부훈령(內部訓令)에 기초한 경무청고시 <서울 5개 경찰서 내에서의 금지조항>의 하나에는 “천역하던 사람이 강상(綱常)을 넘어 貴人을 능멸하는 것을 금함”이라는 조항이 있는 것을 보면 천민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는 여전히 계속되었으며, 지배층 또한 이중적 입장을 취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¹⁰⁾

이러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백정의 저항은 신문에 나타난 것이 매우 적어 그 정확한 추이는 알 수 없으나, 1900년대 초 황성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① 1900년 2월 경상남도 진주군 등 16개 군의 백정이 “…… 머리에 관(冠)을 쓰지 못했으나 갑오경장 이후, 하늘과 같은 임금님의 은혜를 입어 관을 똑같이 쓸 수 있었다. 그러나 병신년 이후 천대는 전과 같고 관도 또한 쓰지 못했으니, …… 칙명에 따라 착관할 것을 원하다”고 진주 관찰사에게 제소하였더니 “관의 끈은 生牛皮로 하라”고 답했다. 이에 경소(更訴)한 백정은 관찰사에게 관의 끈을 생우피로 강요당하고 쫓겨난다. 그후 백정의 上訴에 따라 內部로부터 해당 관찰사에게 「백정의 면천입적」 지령이 내리게 된다. (『황성신문』, 1900년 2월 5일·17일)

② 1901년 2월 경상남도 예천군의 백정 3명이 군수의 관례(官禮) 강요를 거부하여 수개월간 투옥된다. 이 사정을 문경군의 백정이 內部에 호소하여 “이와 같은 작폐를 모두 禁하라”는 훈령을 가지고 돌아오자, 문경군수로부터 투옥되고 돈을 강탈당하지만, 그간의 사정을 알고 있던 서울의 재설군(宰設軍—白丁을 가리킴) 박성훈 등이 內部에 제소하여 “宰人을 즉시 석방하고 빼앗긴 돈은 되돌리게 하라”고 요구한다. (『황성신문』, 1901년 2월 8일)

이들 기사 외에도 몇 개의 기사가 더 보이나, 모두가 관리에 의한 백정차별과 그에 대한 백정들의 대응내용이다.¹¹⁾

위의 기사로 미루어볼 때 관리들의 백정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일정한 목계 하에 오히려 심화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신분제 폐지는 백정에 관한 한 법령과 실생활에서 표리를 이루고 있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지배층의 의지가 일상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지배층의 소극적인 자세에 비해 언론이나 사회단체의 활동은 보다 적극적이었다. 『독립신문』·『황성신문』 등을 비롯한 언론과 독립협회·협성회 등은 신분제 잔존을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신문논설과 토론회 등을 통하여 차별대우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한편 스스로 사회적인 존재라는 인식과 함께 조선사회의 평등한 일원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백정들도 있었다.

9) 1896년 9월 10일 논설, LG 상남언론재단, 『독립신문 영인본』, 1996.

10) 『독립신문』, 1897년 3월 19일.

11) 고숙화, 앞의 논문, pp.661~62.

1898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열렸던 독립협회 주최의 만민공동회에 최초의 발연자 백정 박성춘은 백정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차별에 대해 토로하면서 조선의 정세에 대한 호소를 하기도 했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으로 무지몰각하나 충군애국의 뜻은 대강 압니다. 지금 이국편민(利國便民)의 길은 관민이 합심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대왕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조(國祚)로 하여금 만세를 누리게 노력합시다.¹²⁾

종교계 역시 신분제 잔존의 철폐에 앞장섰다. 기독교는 포교의 한 방편으로 “절대자 앞에서 평등”을 내세워 백정도 하느님의 피조물로 천부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일반인과 함께 예배에 참석케 했다. 하지만 일반인의 반발로 초기에는 오히려 적대감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는 요인의 하나였다. 선교사의 노력으로 갈등은 점차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차별의식은 상존하고 있었다.¹³⁾

한편 그동안 무적자(無籍者)로서 직역(職域)의 의무가 없던 백정도 갑오개혁 이후 근대사회의 도래에 따라 법령정비와 더불어 국가의 통제 하에 들어갔다. 여태까지는 지방관이나 지방 세력가들에 의한 자의적인 수탈 대상이었던 백정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한 법령이 1896년 1월 법률 1호로 반포된 「포사규칙(庖肆規則)」이다. 포사(庖肆)란 수육판매점을 말하는 것이지만, 「포사규칙」에서는 수육판매업뿐만 아니라, 포사세의 납부기준을 도살회수에 따라 정한 바와 같이 도부업(屠夫業)까지도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포사 주인이 도부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포사와 도수장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포사규칙」은 사적인 경우였던 포사를 법적인 규제 하에 묶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의 실시는 천역에 강제되어 온 백정을 그대로 법적으로 재편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백정의 직업은 천역시 되어온 도부업·수육판매업에 한층 고정화시키고 말았다.

결국 「포사규칙」의 시행으로 백정이 수육판매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법적인 통제에 놓이게 되었으며, 도부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관리의 예속 하에 되었던 것이다. 이 점이 「포사규칙」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것으로, 「포사규칙」은 백정에 대한 자의적·관습적인 수탈을 국가적인 것으로 편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백정의 관리에의 예속화로 인해 이제 관리들은 「포사규칙」과의 경쟁 속에서 백정에 대한 수탈이 오히려 더욱 가혹해져갔다.¹⁴⁾

백정들은 ‘천역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은 커녕 이중적인 착취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 「포사규칙」은 더욱 강화되다가 1906년 10월 일제에 의한 통감부 설치 이후에는 한층 엄격한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된다. 일제는 그 후 도수장과 수육판매업을 분리시켜 도수장을 장악함으로써 백

12) 鄭喬, 『大韓季年史』上, 光武 2년 戊戌, 국사편찬위원회, 1957, p.282.

13) 임순만, 「기독교 전파가 백정공동체에 미친 영향」, 『형평운동의 재인식』, 솔, 1993, pp.82~85.

14) 고숙화, 앞의 논문, p.652.

정들은 도수장예의 종속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일제에 의한 도수장 관리의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우피(牛皮) 확보에 있었다. 후에 형평운동 과정 중 일제의 도수장으로부터의 독립·자영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이에 기인한다.

백정들이 실질적인 신분해방을 위해 결속단체로 조직한 형평운동은 1923년에 시작되었다. 형평사라는 이름은 저울대 형(衡), 고를 평(平), 단체 사(社), 저울대 모양으로 인간의 신분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이들이 자기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조직체를 갖게 됐다는 것은 의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월 25일 진주의 대안동에서 회원 80여명이 발기회를 갖고 시작된 운동은 급격하게 삼남지방으로 번져갔다.

형평운동을 사건사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자료를 살필 필요가 있다.

경남 진주군 진주면 대안동에 이학찬(李學贊)이라는 백정 출신 자산가가 있었다. 그는 자제를 교육시키기 위해 수차에 걸쳐 공·사립학교에 입학시키려 노력했으나 백정이라는 구실로 거절당하거나, 혹 일단 허가를 받아도 백정 자제임이 알려지면 주위의 배척이나 압박을 받아 중도에 퇴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사회의 물이해를 원망하고 있었다. 때마침 일본 관서지방에서 수평운동(水平運動)¹⁵⁾이 활발하다는 소문을 들은 이학찬은 우인(友人)인 일반민 강상호(姜相鎬), 신현수(申鉉壽, 조선일보 진주지국장), 천석구(千錫九, 진주 자작농회 간부) 등에게 백정의 고애를 호소하여 이들의 찬동을 얻어, 이들 및 같은 백정 출신인 장지필(張志弼, 명치대학 중퇴) 등과 함께 1923년 4월 25일 진주에서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 단체인 「조선형평사」를 조직하게 되었다.¹⁶⁾

그런데 여기서 〈형평사〉의 창립이 일본 수평사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 형평사 조직원의 한 사람인 장지필은 1923년 5월 20일자 『동아일보』, 「사람대우를 애걸」이란 글에서 “..... 제일 딱한 일은 당국에서 우리 운동이 혹 일본 수평사와 악수하지 않는가 하여 주목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다 해방되어 평등대우만 받게 되면 그만이외다. 그 이상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 미루어보면 일본 수평운동이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 해도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보다는 “1919년 3·1운동 이후 1920년대의 민족독립투쟁은 대중계몽운동·물산장려운동·소작쟁의·노동쟁의 등 각 부분별 운동 속에서 개별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서 대중적 기반을 확대시켜 나갔으며, 그러한 가운데 민중의 일상적 이익 옹호와 독립 회복을 위한 反帝투쟁을 수행하는 것이 공통의 과제로 되어 있었다. 이렇듯 형평사 창립은 일본 수평사의 영향이라기보다는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사회운동 전반의 새로운 진전”이라고 살피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¹⁷⁾

15) 수평사 운동은 일본에서 일어난 특수부락민(機多階級)의 신분해방 운동으로서 1922년 3월 〈全國水平社〉가 창립되었다.

16) 조선총독부경무국, 「最新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 昭和8年 -」, 1934, p.133.

이러한 시대상황 아래서 백정에 대한 교육 차별이 직접 동기가 되어 <형평사>가 결성된 것이다. <형평사> 창립과 함께 발표된 <형평사> 주지(主旨)와 사칙을 보면, <형평사>는 우선의 당면목표를 계급타파·교육권장·사원 상호간의 친목에 둔 사회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출발하고 있었다.

衡平社 主旨¹⁷⁾

공평(公平)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령(本領)이다.

그러므로 아등(我等)은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권장하며 아등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期)하는 것이 본사(本社)의 주지이다.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압박을 받아 왔던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토록 통곡하여도 혈루를 금할 길 없다.

여기에 지위와 조건문제 등을 제기할 여가도 없이 목전(目前)의 압박을 절규하는 것이 오등(吾等)의 실정이다. 이 문제를 선결하는 것이 아등의 급무라고 인정하는 것은 적확한 것이다.

비(卑)하고 빈(貧)하고 열약(劣弱)하고 천(賤)하고 굴(屈)한 자는 누구였던가? 아아 그것은 아등의 백정이 아니었던가? 연(然)이나 이같은 비극에 대하여 사회의 태도는 어떠하였던가? 소위 지식계급에서 압박과 멸시만 하였도다. 이 사회에서 백정의 연혁을 아는가 모르는가? 결코 천대를 받을 우리가 아닌가 하노라. 직업의 구별이 있다고 하면 금수의 생명을 뺏는 자 아등만이 아닌 것이다.

본사는 시대의 요구보다도 사회의 실정에 응하여 창립되었을 뿐 아니라 아등도 조선민족 이천만의 분자(分子)로서 갑오년 6월부터 령(令)으로써 백정의 칭호가 없어지고 평민이 된 우리들이다. 애정으로써 상호부조하여 생명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의 번영을 기(期)하려 한다. 이에 40여만이 단결로써 본사의 목적인 그 주지(主旨)를 선명하게 표방코저 하는 바이다.

경남 진주 형평사 발기인 일동

이에 대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형평사>의 발기와 전국적 조직의 확대를 호의적으로 크게 보도해주었다. <형평사> 조직에는 백정신분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백정과 전혀 관계없는 지식인과 운동가들도 많이 참여했다. 봉건적 신분제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지 않았으면 이러한 지원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언론 이외에도 일반 사회운동 단체들도 <형평사>를 직접·간접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창립 1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12개지사와 67개분사로 그 조직이 뿔어나갔다.

그러나 <형평사>는 운동 전개과정에서 방법론상의 문제로 사상 및 세력적으로 대립하게 되어 창립 후 1년만에 분열되고 만다. 계급투쟁의 입장에서 다른 계급투쟁운동과 제휴하지는 혁신동맹 측과 총단결하여 인권해방운동에만 힘쓰자는 진주 본사 측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는 이 땅에 사

17) 고숙화, 앞의 논문, p.667.

18) 「형평사 주지」, 『조선일보』, 1923. 4. 30.

회주의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던 시기였다. 사회주의자들은 형평운동이 완전한 계급해방운동의 의의를 잘 나타낼 '고리'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25년 8월 「예천사건」 이후 〈형평사〉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예천사건」이란 수천 명의 농민에 의해 예천형평분사가 습격당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사회운동 단체에서는 〈형평사〉 지지와 강연회를 통해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후 〈형평사〉와 사회운동 계 단체와의 제휴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26년 이후부터는 조직의 확충 강화와 무산운동에 진출할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사회운동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Ⅲ. 소설에 비추어 본 백정계급의 일상

소설은 대중적 표상을 창출하는 유력한 언어표현 양식이다. 형상화된 인물이나 삶의 모습을 통해 동시대 삶의 표상이나 일상을 읽어 내는 데, 소설은 가장 좋은 매개가 된다.

백정계급의 삶을 담은 소설은 흔치가 않다. 부족하나마 자료 조사에 의하면 백정들의 신분해방을 위해 결성한 단체인 〈형평사〉가 1923년에 창립되어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인 1920년대 후반에 홍사용(洪思容)의 「봉화가 켜질 때에」(『개벽』 61호, 1925. 7. 露雀이란 호(號)로 발표됨), 조명희(趙明熙)의 「낙동강」(『조선지광』, 1927, 창작집 『낙동강』, 백악출판사, 1928) 등이 있고, 해방 후 황순원(黃順元)의 『日月』(『현대문학』 1962. 1.~1964. 11. 연재)이 있다.

〈형평사〉가 결성되던 시기인 1920년대 백정계급의 인구는 〈형평사〉 주지에서 밝힌 것처럼 40여만 명 정도일 것이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민족이나 대중 같은 거대담론에 치우쳐 작가들의 시선이 미치지 못했을까, 아니면 철저한 차별성 때문이었을까.

조명희의 단편소설 「낙동강」은 식민지시기 계급문학운동이 낳은 대표적인 걸작으로 꼽힌다. 1927년 『조선지광』에 발표된 이 소설은 카프(KAPF)의 '1차 방향전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힌다. 계급성 짙은 소설로 식민지 조선의 농촌을 배경으로 사회변혁의지를 잘 담아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작품이 담고 있는 사상이나 '의미'보다는 작품 속에 묘사되어 있는 백정계급의 일상과 에피소드가 현실의 재현이라는 사실관계 맥락을 밝혀 신분변동 이후 그들의 일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낙동강」의 주인공 박성운은 1919년 삼일운동에 참가하여 1년 반을 감옥에서 살다 나왔고, 그 사이 일제의 수탈로 폐허해진 고향마을을 떠나 만주와 중국 대륙을 떠돌다가 사회주의자가 된다. 다섯 해의 세월을 해외에서 보낸 뒤 고향 경상도로 돌아간 성운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투쟁하고 농촌 야학을 설치하여 농민 교양에 힘쓰고 소작쟁의를 조직하다 체포되어 일제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하여 결국 죽음을 맞는다.

그런데 여기에 한 에피소드가 있다. 그것은 이해 여름 어느 장날이다. 장거리에서 형평사원

들과 장꾼-그중에서 장거리 사람들과 큰 싸움이 일어났다. 싸움 시초는 장거리 사람 하나가 이곳 형평사 지부 앞을 지나면서 모욕하는 말을 한 까닭으로 피차에 말이 오라가락하다가 싸움이 되고 또 떼싸움이 되어서, 난폭한 장거리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형평사원 촌락을 습격한다는 급보를 듣고, 성운이가 앞장을 서서, 청년회원, 소작인조합원 심지어 여성동맹원까지 총출동을 하여가지고 형평사원 편을 응원하러 달려갔었다. 싸움이 진정된 후, “너도 이놈들, 새 백정이로구나.”하는 저편 사람들의 조소와 만매를 무릅쓰고도 그는, “백정이나 우리나라 다 같은 사람이다. …… 다만 직업의 구별만 있을 따름이다 …… 무릇 무슨 직업이든지, 직업이 다르다고 사람의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옛날 봉건시대 사람들의 하는 말이다. …… 더구나 우리 무산계급은 형평사원과 같이 손을 맞붙잡고 일을 하여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 그러므로 형평사원을 우리 무산계급은 한 형제요 동무로 알고 나아가야 한다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열렬히 부르짖은 일이 있었다. (「낙동강」)

작품 속에 그려진 에피소드는 그야말로 현실의 재현이었다. 〈형평사〉에 대한 반대운동, 즉 백정에 대한 혐오는 진주에서 〈형평사〉 설립이 선언된 시점부터 바로 시작되었다. 형평운동의 지원에 참여한 진주의 지식인·운동가들은 일반인들에게 ‘신백정’이라는 욕을 먹었다. 1923년 5월 13일, 〈형평사〉 창립 축하식이 있던 다음날 진주 지방의 일반농민 2,500여명은 〈형평사〉 해산을 모의하여 〈형평사〉 본부를 습격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를 했다.

- 1) 형평사에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백정과 동일하게 대우할 일
- 2) 우육(牛肉)은 절대로 비매동맹(非賣同盟)할 일
- 3) 진주청년회에 대하여 형평사와 절대로 관계가 없도록 할 일
- 4) 노동단체(勞働共濟會)에서는 형평사를 절대로 관계치 말게 할 일
- 5) 형평사를 배척할 일¹⁹⁾

이들은 우육불매동맹을 결성하여 도부업이나 수육판매업에 대부분이 종사하는 백정에게 정신적 위압뿐 아니라 경제적 타격을 주려고 한 것이다. 청년회나 노동공제회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청년회관이 창립 축하회장이었고, 동 축하식에 노동공제회의 간부가 축사를 행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6월 하순에 들어가 노동공제회의 중재에 의해 일단 해결을 본다.²⁰⁾

그러나 이 사건을 접한 진주경찰서장은,

“일본에도 예다(穢多)라고 하는 것은 평민과 같은 대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무엇 하나 성공한 일이 없다. 이번 형평사도 그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 백정에게 잘못이

19) 『동아일보』, 1923. 5. 30.

20) 고숙화, 앞의 논문, p.672.

있으니 내가 곧 해산시킬 생각이다.”²¹⁾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일반인은 물론 일본인이기는 하지만 관리들도 백정에 대한 차별의식이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배계급이 아닌 스스로도 신분해방자의 입장인 농민·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철저한 차별의식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에서는 새로이 백정들의 주소·성명·직업·연령 등을 조사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감시를 강화하라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었던 것이다.²²⁾

1924년 5월 8일 경남 진영에서 일어난 형평사원들과 행상대 패싸움은 가장 전형적인 사건의 하나이다. 형평사원 조덕수가 장날 쇠고기를 팔러 갔다가 행상 최모의 점포 앞에서 잠시 지체하자 최모가 다른 곳으로 가라 하였다. 그런데 조덕수가 최를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았던 것이다. 이에 점주 최모가 계급적 어구로서 “백정 놈이 양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고 하였더니, 조덕수가 지지 않고 “백정 놈은 사람이 아니오”라며 맞섰다는 것이다. 이 광경을 재래의 인습에 젖은 근처의 행상들이 보다가 “아직까지 백정은 백정 놈이오, 양반은 아니니 무슨 소리냐?”고 하며 수십 명의 행상대가 모여들어 조덕수를 무수히 난타했다. 인근의 형평사원들이 달려와서 결국 패싸움으로 변했다.²³⁾

이 기사는 그야말로 작품 속의 현장이다. 작가가 이 기사에서 힌트를 얻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와 비슷한 일반인과 백정간의 충돌은 1923년 〈형평사〉 창립 이후부터 1925년 9월 사이에, 비교적 다수인의 충돌사건만 추려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42건이나 되었다.²⁴⁾

「낙동강」의 여주인공 로사는 백정의 딸이다.

신분해방이 선언된지 무려 30년이 지난 1925년 5월 7일, 충북 진천면 읍내리에 사는 백정 리무쇠(李武錫)의 처 김순남(26세)은 한 동리에 사는 립주력과 류수복이라는 두 남자에게 “백정 년이라고” “까닭 업시 구타 중상을” 당했다. 임신부였던 김순남은 “진단을 받아 고소코자 하였으나” 의사로부터 “진단 널만한 피해가 없어 못 내주겠다”는 거절도 당했다. 장터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가해자들에게 “몇 푼 안 되는 고기값을 좀 달라 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백정 년이라고” 뺨 때리고 발로 차 형평사원 분개」, 『동아일보』, 1925. 5. 18)²⁵⁾

그렇으니 ‘백정 놈의 딸’이 감히 인간 축에 끼일 수 있는 것이었을까?

백정의 딸로 신분의 벽을 넘기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길은 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교육이었다. 백정들에게 근대 교육은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적인 지위를 상승시키는 지름길로 인식되

21) 『동아일보』, 1923. 5. 30.

22) 『동아일보』, 1923. 6. 5.

23) 「량반 자랑하다가 衡平社員과 爭鬭」, 『동아일보』, 1924. 5. 11.

24) 김의환, 「일제치하의 형평운동」, 『향토서울』 제31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7.

25) 천정환, 「근대적 대중지성의 형성과 사회주의(1)」, 『상허학보』 22집, 상허학회, 2008, p.164.

었다.

로사의 부모는 형평사원으로서, 그도 또한 성운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딸일망정 발전을 시켜 볼 양으로 그리하였던지 서울을 보내어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시키고 사범과까지 마친 뒤에 여훈도가 되어 멀리 함경도 땅에 있는 보통학교에 가서 있다가 하기 방학에 고향에 왔던 터이다. 그의 부모는 그 딸이 판임관이란 벼슬을 한 것이 천지개벽 후에 처음 당하는 영광으로 알았었다. 그리하여 그는, “내 딸이 판임관 벼슬을 하였는데, 나도 이 노릇을 더 할 수 있는가?” 하고는, 하여오던 수육업이라는 직업도 그만두고, 인제 그 딸이 가 있는 곳으로 살러 가서 새 양반 노릇을 좀 하여볼 뻔심이었다. 이번에 딸이 집에 온 뒤에도 서로 의논하고 작정하여 놓은 노릇이다. (『낙동강』)

백정 신분의 여자가 타인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면천 이후 또 하나의 천지개벽할 일이었다.

‘배워야 인간 구실한다’라는 유교사회의 교육목표는 양반들에게만 해당되었었다. 그러나 ‘무지로부터의 해방’은 1894년 사회신분제의 폐지 이후 신분상승의 기회로 여겨졌다.

박성운은 과연 낙동강 어부의 손자요, 농부의 아들이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고기잡이로 일생을 보내었었고 그의 아버지는 농사꾼으로 일생을 보내었었다. 자기네 무식이 한이 되어 그 아들이나 발전을 시켜 볼 양으로 그리하였던지, 남 하는 시세를 쫓아 그대로 해보느라고 그리하였던지, 남의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지어 구차한 살림을 해나가면서도, 어쨌든 그 아들을 가르쳐 놓았다. 서당으로, 보통학교로, 도립 간이농업학교로 …….

그가 농업학교를 마치고 나서, 군청 농업조수로도 한두 해를 있었다. 그럴 때에 자기 집에서는 자기 아들이 무슨 큰 벼슬이나 한 것 같이 여기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아들 자랑하기가 일어났었다. 그리할 것 같으면 동네 사람들은 또한 못내 부러워하며, 자기네 아들들도 하루바삐 어서 가르쳐 내줄 마음을 먹게 된다. (『낙동강』)

유교적 신분사회에서 처절한 불평등을 경험했던 그들이라 교육은 입신출세의 기회였다. 실제로 3·1운동 이후 1920년을 경계로 공립 보통학교 입학자 수는 급증하기 시작한다. 1915년 이래 1919년까지 3만여 명이었던 것이, 1920년에는 6만여 명, 1921년에는 8만 5천여 명, 1922년에는 12만 5천여 명, 1923년에는 13만 7천여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²⁶⁾

더구나 백정들에게 교육은 ‘새 양반노릇’이라는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었다. 그들에게 교육은 신분해방 그 자체였다.

진주에서 최초의 형평운동이 시작되게 한 계기도 ‘교육’에 있었다. 1922년 자산가였던 백정 이학

26) 강동진, 『일제지배 하의 노동야학』, 『역사학보』 46집, 1970, p.9.

찬이 진주 일신학교의 수축에 재력, 인력을 동원해주고도 자신의 아들이 지역 주민들 때문에 학교 입학에 거절당하자, 지역 운동가들을 찾아 나서서 조직운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형평사〉는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상호부조와 〈형평사〉 자체의 이념을 교육하는 활동들 이외에 소속원 자녀들을 위한 야학의 설치와 신문·잡지의 구독을 권장하고 ‘상식’ 향상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의 지식교양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이는 〈형평중학〉의 건립과 『형평잡지』의 발간과 함께 ‘사칙(社則)’에 명기된 바 있다.²⁷⁾

그러나 그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1923년 6월 전북 군산에서는 학교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에 〈형평사〉 분사가 현금을 내자 〈군산청년회〉가 ‘더러운 돈’이라고 받기를 거절했다.²⁸⁾ 일제의 제도적 차별에 의해 백정의 자녀들은 보통학교 입학원서에 신분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강원도 횡성 보통학교에서 백정생도가 구타당한 사건에 대해 “금일 학동의 입학지원서에 신분을 기입하는 폐해는 단연 철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²⁹⁾

라는 기사에서 그 실상을 엿볼 수 있듯이 일반인들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은밀한 ‘거부’와 ‘혐오’는 인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IV. 맺음말

근대 신분제도 변동과정에서 최하위 계층인 백정계급의 고달픈 일상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사회적 제약, 차별대우의 질곡에서 벗어나고자 계급타파·교육권장·사원 상호간의 친목을 내세워 사회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형평사를 결성하여 대응하였다. 그러나 대중의 철저한 차별의식은 만만치가 않았다. 그후 형평운동은 어떠했을까.

황순원의 『일월』은 1960년대 초반에 씌어진 소설로, 1967년 김의환의 「일제치하의 형평운동攷」(『향토서술』 31호, 1967)란 논문을 통해 형평사 운동의 전모가 밝혀지기 전에 쓴 소설이다.

이 소설 속에는 〈형평사〉의 창립배경과 후일담 등이 취재를 통해 서술되어 있는데, 황순원이 처음부터 〈형평사〉 문제에 관심을 가졌거나 형평운동 자체를 그리려 했던 것은 아니다. 백정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평운동으로까지 관심의 대상이 넓혀진 것일 뿐이며, 이를 다루는 방식도 여느 사실주의 소설과는 다르다.³⁰⁾

27) 김중섭, 앞의 책, p.329.

28) 「청년회를 비난, 군산청년회는 공공사업에 냉정하고 형평사에서 기부한 돈을 더럽다고」, 『조선일보』, 1923. 6. 28.

29) 『조선통신사상』, 1926. 3. 16.

소설 속에는 축산기업조합 대관편찬위원회 간사를 통해 〈형평사〉 이후의 사정을 듣게 된다.

축산기업조합의 정확한 명칭은 한국축산기업조합으로, 이 단체의 후신인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의 연혁에는 세조 12년(1466) 조직한 〈현대방(懸大房)〉을 효시로 하여 조선 말기 〈균흥조합(均興組合)〉, 1909년 〈집성조합(集成組合)〉, 1923년 〈형평사(衡平社)〉, 1930년 〈대동사(大同社)〉, 1947년 서울 집성조합 연합회, 1952년 〈한국축산기업조합 연합회〉, 1955년 전국적인 조직의 사단법인 〈한국축산기업조합 연합회〉, 1965년 〈축산기업조합중앙회〉로 법인 설립 후, 1996년 〈축산기업중앙회〉로 명칭이 바뀐다.³¹⁾

연혁에서 보았듯이 축산기업중앙회는 스스로 〈형평사〉와 〈대동사〉를 계승한 단체로 표방하고 있으나, 형평운동이 해방 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회의적이다. “〈대동사〉로 바뀌면서 형평운동이 끝났다고 보는 것은 〈대동사〉가 친일세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어용단체로 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형평운동과 대비되기 때문이다.”³²⁾라는 진술에서 보듯이 〈형평사〉와 〈대동사〉는 성격이 다르다. 사명(社名) 개칭 이유에 대해 창립 발기인이었던 장지필(張志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처음 형평운동을 일으켰을 당시 약 12년간의 기간을 예상하여, 이를 선전·사업·실행의 3기로 나누어 착각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거의 3기의 과정을 모두 실천했기 때문에 형평운동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중과 같은 수준에서 그들과 같은 보조로 운동을 전개한다는 의미에서 명칭도 새로 고친 것입니다.”³³⁾

‘대중과 같은 수준’이라는 의미에서 〈大同社〉로 개칭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내세웠던 당면 목표인 계급타파는 이루어진 것일까.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 모든 과정을 따라가노라면 적어도 『일월』이 씌어질 당시까지만 해도 백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소설에서 상진영감은 백정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은행 용자를 거절당해 결국 회사가 도산하게 되고, 인철은 파혼당하고 형인 인호는 호적을 파서 떠난다. 좀 거슬러 올라가보면 상진영감의 누이동생은 백정의 딸임이 밝혀진 후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를 두고 혹자는 “이 소설에서의 백정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사실 1960년대만 해도 그와 같은 계층 문제는 이미 그렇게까지 심각성을 띤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해 생죽음까지 빚고 있는 이 소설의 시츄에이션 중 일부는 어쩌면 좀 과장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³⁴⁾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뿌리를 고귀한 신분에서 찾고 이를 분명하게 밝히

30) 정영훈, 「백정 관련 연구의 맥락에서 본 〈일월〉」,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학회, 2008, p.332.

31) <http://www.kfmp.or.kr/kfmpinfo.html>

32) 김중섭, 「1920년대 형평운동의 형성과정 -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59, 1988, p.231.

33) 『조선일보』, 1935. 4. 26.(특히 굵은체 부분은 필자가 강조한 부분임).

34) 장양수, 「황순원 장편 〈일월〉의 실존주의 문학적 성격」, 『한국문학논총』 24집, 1999. 6, p.246.

기 위해 대관을 편찬하려 했던 축산기업조합원들의 노력과, 대관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백정의 후손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되고 만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백정을 “비유나 상징”으로 읽는 것은 지나치다. 김중섭이 형평사 운동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를 했던 형평사원의 후예들의 이름이 모두 이니셜로 처리되어 있는 것은 어떤가. 이름자가 밝혀지지 않는 것은 이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중섭이 이들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초반이었다. 하물며 『일월』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1950년대 후반이야 말할 것도 없다. 『일월』이 다루고 있는 세계가 당대적이며 실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은 여기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³⁵⁾

일본에서는 탐정업이 성행중이라고 한다. 그들의 업무 중 가장 활발한 작업은 의뢰인의 식구 중 혼사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집안관계를 밝혀내는 일이라고 한다. 일본에도 ‘특수부락민’이라는 천민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³⁶⁾

인도의 ‘불가촉천민,’ 일본의 ‘특수부락민,’ 한국의 ‘백정’ 등, 민족공동체 내에서 기피 내지는 혐오 집단은 유래를 따지기 전에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 백정에 대한 사회문화 현상의 바닥에 자리 잡은 집단무의식(mentalities)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독립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통신사상』

조명희, 「낙동강」, 『조선지광』, 1927.

조명희, 「낙동강」, 백악출판사, 1928.

황순원, 「일월」, 『현대문학』, 1962. 1~1964. 11.

저서 및 논문

강동진, 「일제지배 하의 노동야학」, 『역사학보』 46집, 역사학회, 1970.

강만길, 「鮮初白丁考」, 『사학연구』 18, 한국사학회, 1964.

고숙화, 「衡平社에 대한 一研究」, 『사학연구』 38, 한국사학회, 1984.

35) 정영훈, 앞의 논문, pp.346~47.

36) ‘특수부락민’은 ‘예다(穢多)’ 계급이다. 일본에서 기피되고 있는 천민들로 그들도 신분해방운동으로서 1922년 3월 〈全國水平社〉가 창립되었다. 형평사는 일본 천민해방운동단체인 수평사와 곧잘 비교되고 실제로 연대하기도 했다.

- 국사편찬위원회 편, 『高宗時代史』 3, 탐구당, 1969.
- 김의환, 「일제치하의 형평운동攷」, 『향토서울』 제31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7.
- 김중섭, 「1920년대 형평운동의 형성과정 -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59,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8.
- 김중섭, 『형평운동연구 : 일제침략기 백정의 사회사』, 민영사, 1994.
- 신용하, 『한국근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0.
- 신용하, 「1894년의 사회신분제의 폐지」, 『규장각』 제9집, 서울대 규장각, 1986.
- 이우성, 「閑人·白丁의 新解釋」, 『역사학보』 19, 역사학회, 1962.
- 임순만, 「기독교 전파가 백정공동체에 미친 영향」, 『형평운동의 재인식』, 솔, 1993.
- 장양수, 「황순원 장편 <일월>의 실존주의 문학적 성격」, 『한국문학논총』 24집, 한국문학회, 1999.
- 鄭喬, 『大韓季年史』上, 국사편찬위원회, 1957.
- 정영훈, 「백정 관련 연구의 맥락에서 본 <일월>」,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회, 2008.
- 천정환, 「근대적 대중지성의 형성과 사회주의(1)」, 『상허학보』 22집, 상허학회, 2008.

* 이 논문은 2009년 11월 30일 투고되어

2009년 12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0년 1월 1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0년 1월 15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Changes in Modern Status System and the Reorganization of Daily Lives Social Equality Movement and the Daily Lives of Butchers

Shin, Jong-han*

This thesis examines the changes in social status system and the reorganization of daily lives in modern Korean society, and also examines how the social equality movement of butchers has been represented in literature.

Butchers were one of the lowest in social hierarchy since Chosun dynasty. In Chosun dynasty, where everyday lives were strictly restricted by the social status system, butchers were engaged in butchery and making waves from willows. They led destitute lives as a group low in social standing.

After the Gabo Reform of 1894, butchers were released from the social hierarchy as the status system was abolished. However, it took a long time for them to free themselves from the still-prevailing discrimination. People admitted the necessity of butchers, but since they still regarded butchers as a 'social underdog,' the discrimination in everyday lives were not at all improved. As butchers struggled with the social prejudice, the press, social and religious organizations including *Independence Daily*, *Hwangsung Daily*, and *Independence Association* started to debate with the injustice.

As the Reform intended to govern people with a modern legal system, butchers who once did not have the obligation of national service, were controlled under the country after the Reform. They were regulated by the Posa Rules; the Japanese imperialistic government separated butchery from selling of meats, and by taking over the power for managing butchery, they restricted butchers.

Butchers then formed Hyungpyongsa, an organization for their freedom from social hierarchy. The name Hyungpyongsa consists of balance (hyung), leveling (pyong), organization (sa), which means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 like a balance rod. It is a social equality movement began in 1923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butchers, who had been despised for a long time. The movement was later influenced by the equality movement in Japan to some extent; however, it is to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progress in people's movement and social campaigns since the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Supported by the press and other social organizations, Hyungpyongsa expanded to the extent of 12 branches and 67 offices after one year of its establishment. However, due to the difference of opinions over methodology and ideology, the movement was split one year after it was founded. In addition, taking political lines with the socialists, it tended to focus more on the socialism movement after 1926 and tried to strengthen the organization and involve itself in the proletarian movements.

Being one of the most radical movements on the abolition of social hierarchy, the Hyungpyongsa movement is represented in modern Korean novels, e.g. *Nakdongkang* by Myunghee Cho, and *The Sun and the Moon* by Soonwon Hwang.

In *Nakdongkang*, members of Hyungpyongsa and other market people are depicted as quarreling with each other. It is a faithful representation of the reality of those days, describing the opposition between Hyungpyongsa and the common people. As education is regarded as the best way for butchers to overcome the social hierarchy, Rosa, a butcher's daughter, has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Education and works as a teacher in elementary school in the novel. In fact, only education enables butcher's children to let down the bars of prejudice on the social status system.

The issues on Hyungpyongsa and butchers are more clearly presented in *The Sun and the Moon*. This novel represents the time after the social equality movement and reports the still-existing discrimination on butchers. No matter how the social status system has been abolished legally, the novel shows butchers are treated the same as a 'social underdog' in daily lives, which suggests tha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completely abolish the feudal social status system even in modern everyday lives.

[Key Words] social status system, butchers, Hyungpyongsa, mentalites, social movement